

LG, AI 기반 '스마트 사운드' 구현... 오디오 시장 정조준

'엑스붐' 브랜드데이

스테이지 301 등 신제품 3종 공개
팝스타 윌아이엠, 제품 전반 관여
'RAiDiO.FYI' 연동 계획 밝혀

LG전자가 세계적인 뮤지션 '윌아이엠'과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무선 오디오 브랜드 'LG 엑스붐'을 선보이며 글로벌 오디오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7일 서울 영등포구 복합 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 'LG 엑스붐 브랜드데이'를 열고 신제품 3종을 공개했다. ▲120W 고출력의 '엑스붐 스테이지 301', ▲스테레오 사운드와 감각적 디자인의 '엑스붐 바운스', ▲컴팩트한 사이즈와 휴대성을 강조한 '엑스붐 그랩'이다. 세 제품 모두 AI 기반 '스마트 사운드' 기술이 핵심이다.

'AI 공간인식 사운드'는 스피커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그라운드220에서 열린 LG 엑스붐 브랜드 데이에서 이정석 LG전자 MS사업본부 오디오사업담당 전무(왼쪽부터)와 윌아이엠, 오승진 LG전자 한국영업본부 MS마케팅담당 상무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놓인 공간의 크기, 가구 배치, 벽 재질 등을 인식해 소리의 반사나 흡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음향 밸런스로 자동 조정해 준다. 'AI 사운드-라이팅' 기능은 재생 중인 음악 장르에 맞춰 스피커 조명과 음장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제품별 활용도도 뚜렷하다. '엑스붐 스테이지 301'은 120W 고출력에 6.5인

치 우퍼, 최대 12시간 재생 가능한 배터리로 대형 공간에서도 풍부한 사운드를 구현한다. '바운스'는 튀어오르는 패시브 라디에이터와 매직 스트랩으로 야외 활동에 최적화됐고, '그랩'은 자전거 물병 거치대에도 들어가는 휴대성이 특징이다. 그랩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도 수상했다.

제품별 활용 환경도 뚜렷하다. '엑



엑스붐 신제품 /LG전자

스붐 스테이지 301'은 120W 고출력에 6.5인치 우퍼,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갖춰 파티나 공연장 환경에 최적화됐다. '엑스붐 바운스'는 음악에 반응해 상단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튀어 오르는 역동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브랜드 리뉴얼의 중심에는 윌아이엠이 있다. 그는 세계적인 팝그룹 블

랙아이드피스 멤버이자 AI 라디오 앱 '라디오파이(RAiDiO.FYI)'의 최고경영자(CEO)다. 엑스붐의 '경험 설계자(Experiential Architect)'로 참여해 제품 디자인은 물론 사운드 콘셉트와 마케팅까지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현장에서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기계를 넘어서 어떤 경험을 만들어내는가의 문제"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윌아이엠은 향후 'RAiDiO.FYI'를 엑스붐에 연동할 계획도 밝혔다. 사용자의 음악 취향과 뉴스 관심사를 분석해 AI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추천하고, 음성으로 질문에 응답하는 '양방향 오디오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엑스붐을 시작으로 오디오 브랜드를 포터블, 웨어러블, 홈 오디오 등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군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HD현대, 美 최대 방산 조선사 '함정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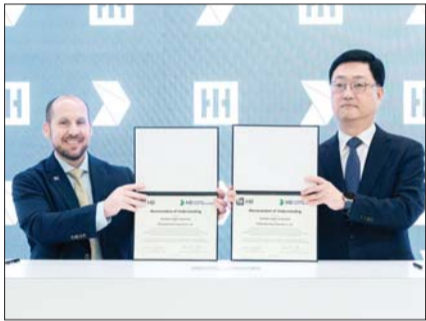
헌팅턴 잉걸스 기술협력 MOU 함정 건조분야 전문성·역량 결합

HD현대 미국 방산 조선사와 협력을 발판으로 선박 건조 생산성을 향상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양국간 조선업 협력 기조가 국내 업계에 본격 영향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HD현대 측은 지난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헌팅턴 잉걸스는 미국 중남부 미시시피주에 미국 최대 수상함 건조 조선사인 잉걸스 조선소를 운영 중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



HD현대 측은 지난 7일(현지시간)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잉걸스 조선소 브라이언 블란체트 사장, HD현대 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HD현대

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조 비용과 납기를 개선하기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이 현존 최고 사양의 이지스함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 기업 간 최초의 협력 사례라고 강조했다. 양국 조선산업 파트너십과 신뢰 강화의 중요한 마중물

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조선소 구축을 위한 공정 자동화와 로봇, 인공지능(AI) 도입을 비롯해 생산인력 교육 및 기자재 공급망 참여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동 투자를 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는 "혈맹인 한국과 미국의 대표 조선기업 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무인 수상정(USV)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ABS선급과 미 해군용 경량 군수지원함에 대한 설계 인증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조선업계 공략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기아 '더 기아 타스만'이 진흙진 구간을 민첩하게 주행하고 있다.

온로드·오프로드 자유롭게 질주 '픽업트럭 DNA' 품은 패밀리카



기아 타스만

주행경험 매력적... 실내 불편 최소화

'픽업트럭은 실용성이 뛰어나지만 다목적성은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완벽하게 바꿨다.'

기아 브랜드 최초의 픽업트럭 '더 기아 타스만'을 시승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다.

최근 강원도 인제 일대에서 기아의 첫 픽업트럭인 타스만을 시승했다. 시승은 오프로드와 일반 도로, 임시도로

코스에서 진행됐다.

우선 타스만 기본 모델로 진행된 일반 도로 주행(편도 30km)에서는 SUV의 편안함을 즐길 수 있었다. 일반 도로 주행에서 풍절음이나 노면 진동, 소음은 물론 엔진음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2열시트의 활용성이 인상 깊었다. 리클라이닝 기능을 접목해 기존 픽업트럭 2열 좌석의 불편함을 없앴다.

픽업트럭의 매력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오프로드와 임시도로 코스에서는 즐거움이 배가 됐다. 울퉁불퉁한 자갈과 진흙, 물도 거침없이 달리는 정통 픽업트럭의 매력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축소... 3.6조 → 2.3조

안병철 사장 "주주 신뢰 보답할 것"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사진)은 최근의 유상증자 논란과 관련 "사전에 주주들에게 예고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경영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유상증자 규모 축소와 제3자 배정 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는 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비전 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중인 유상증자(유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한화에어로는 이사회를 열고 3조600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현지투자자와 해외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장의 신뢰도가 급속도로 떨어질까 한화에어로는 유증을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한화에너지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검토하면서 투자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1조3000억원이 승계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의문점을 해소시킨 것이다.

안병철 사장은 "1조3000억원을 되돌리는 방법도 대주주들은 일반주주들이 받는 15%의 할인 없이 진행해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조로 바꿨다"며 "회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제3자 배정 유증은 이달 20~21일쯤 이사회 결의가 이뤄질 것"으로 덧붙였다.

한화에어로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래 경영 계획도 밝혔다. 향후 4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하고, 회사의 핵심 산업인 방산은 물론 조선·해양·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는 2035년까지 연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2가지로 방산과 조선·해양·에너지로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투자 6조2700억원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1조5600억원 ▲지상 방산 인프라 투자 2조2900억원 ▲항공우주 산업 인프라 투자 9500억원이다.

안 사장은 "성공적인 증자와 공격적인 투자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신뢰에 적극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LG이노텍-인텔, AI 비전 검사분야 협력

AI 기반 스마트팩토리 구축 속도

LG이노텍이 인텔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속도를 낸다.

LG이노텍은 인텔과 AI 비전 검사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으로 그래픽처리

장치(i-GPU) 기반 'AI 비전 검사 솔루션'을 생산 공정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AI 학습 모델을 통해 검사 정확도를 100%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학습 시간도 최대 1.5배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